

# 지계 연구 II \*

- 일본에 건너간 우리 지계 -

김 광 언\*\*

## 目 次

I. 머리말	VI. 쪽지계
II. 우리 지계에 대한 일본 학자들의 글과 논문	VII. 바지계
III. 초기의 글과 대표적 논문	VIII. 권지계
IV. 이름	IX. 거지계
V. 제가지지계	X. 맺음말

## I. 머리말

지계 연구 I 에서는 우리네 지계에 제가지지계, 옥지계, 쪽지계, 바지계, 권지계, 거지계, 쇠지계, 쟁기지계, 모지계, 부계, 물지계 따위가 있음을 들고 이들을 만드는 법, 형태상의 특징, 분포 지역, 사용법 따위에 대해 설명을 붙였다. 그리고 중국, 대만, 타이랜드 등지에서도 지계를 연상시키는 기구를 쓰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네 지계와 다른 사실을 밝혀 놓았다<sup>1)</sup>.

이 글의 목적은 일부 일본 학자들이 우리 지계를 말할 때 '대륙'을 들먹임으로써 우리 지계가 마치 중국에서 들어왔거나 그쪽의 영향을 받아 생겼다는 암시를 주고 있지만 이는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밝히는데에 있다. 그리고 역시 일본의 일부 학자들이 저들의 제가지지계가 우리게서 건너 간 사실을 인정 하면서도 그밖의 지계는 일본에서 생겨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그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한다.

이러한 오류가 빚어진 이유를 여러가지로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저쪽 사람들은 제가지지계를 제외한 다른 지계들을 우리가 예부터 써 온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닐까.

\* 이 논문은 1994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공모 과제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인하대 교수

1) 고문화 42집, 1994, 대학박물관 협회.

일본 사람들의 지게 연구는 磯貝勇이 1936년 “지게에 대해서(背負い梯子についてく予報)”라는 글을 발표 하면서 시작 되었으며 그 뒤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와 “민구 연구로서는 가장 진척을 보인 분야의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다<sup>2)</sup>. 磯貝勇은 뒤에 (1958) 앞의 논문을 읽고 보태서 “지게 - 등 운반과 그 용구(背負い梯子-背負い運搬とその用具)”라는 글을 발표 하였고(日本の民具, 角川書店) 이것은 일본의 지게연구에 길잡이 구실을 할만큼 중요한 논문으로 떠올랐다. 우리네 제가지 지게가 일본에 건너간 사실도 이 글에서 밝혀졌다.

## II. 우리 지게에 대한 일본 학자들의 글과 논문

우리 지게에 대해 설명한 일본 학자들의 글이나 논문 또는 책자들을 발표 연대에 따라 늘어 놓는다. 편의상 책 이름이나 글 또는 논문 제목만 묶음표 안에 넣고 나머지는 우리 말로 바꾸어 소개한다.

- 1) 今村頼, 1928, ‘조선의 재래육운(朝鮮の在來陸運)’, 歴史民俗・朝鮮漫談, 南山吟社.
- 2) 染木潤, 1941, 北滿民具探訪手記, 座右寶刊行會.
- 3) 磯貝勇, 1958, 지게 - 지게 운반과 그 용구(背負い梯子-背負い運搬とその用具), 日本の民具, 角川書店.
- 4) 神野善治, 1980, 伊豆의 運搬習俗 - 지게, 땅대, 머리에 예 나르기에 대해서(伊豆の運搬習俗 - 背負い梯子・背負袋・頭上運搬について -), 沼津市歴史民俗資料館紀要 4, 沼津市歴史民俗資料館.
- 5) 中村たかお(たかを), 1981, 지게(背負梯子), 日本の民具, 弘文堂.
- 6) 小野重明, 1984, 南西日本에 지게에 대해서(南西日本のカリコく負い梯子)를めぐって), 鹿兒島民具 5號, 鹿兒島民俗學會.
- 7) 木下忠, 1986, 民俗과 藝術 - 技術・習俗의 側面에서(民俗と藝術 - 技術・習俗の側面から), 日本民俗學大系 第十三卷, 技術と民俗 上 36쪽, 小學館.
- 8) 佐藤廣, 1986, 武藏의 지게(武藏の背負梯子), - 武藏野台地・關東山地山麓地 -, 앞 7의 책, 310쪽.
- 9) 大久根茂, 1986, 糸魚川街道의 보카와 지게(糸魚川街道のボッカと背負梯子), 앞 책 314~315쪽.
- 10) 織野英史, 1989, 瀨戶內海에 있어서 지게의 形態와 分布(瀨戶內海における背負梯子の形態と分布), 瀨戶內海歴史民俗資料館紀要 第四號.
- 11) 織野英史, 1990, 農耕을 가능케 한 重要 運搬具(農耕を支えた基幹運搬具) - 西日本, 特히 瀨戶內海西部, 中國山地 西部를 中心으로 - 瀨戶內海歴史民俗資料館紀要 V.

2) 木下忠, 1989, 背負う, 担う, かべる, 岩崎美術社, 207쪽.

- 12) 山口賢俊, 1969. 新潟県の運搬具에 對해서(新潟県の背負い運搬具について), 日本民俗學 87號.
- 13) 宮本馨太郎, 1973. 民具入門, 慶友社.
- 14) 脇田雅彦, 1978. 지게 꼬리와 지게 등태의 형태(背負い繩・背負い板の形態(續)), -岐阜県内-, 民具 Monthly 11卷 6號.
- 15) 下野敏見, 1992. 日本의 등 運搬具의 系統과 誕生(日本の背負い運搬具の系統と誕生(-背負い梯子と日本繩の誕生-)), 鹿兒島民具, 第十號, 鹿兒島民俗學會.

### Ⅲ. 초기의 글과 대표적 논문

우리 지게를 처음으로 소개한 두편의 글과 그것의 일본 전파 사실을 인정한 대표적 논문을 살펴 보기로 한다. 앞의 글들은 첫번째라는 의미 외에 우리 지게를 보는 일본쪽의 시각이 이미 이때에 굳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에서, 뒤의 논문은 앞에서 설명한대로 교과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나머지 글들은 언급한 지게의 종류에 따라 묶어서 설명한다.

#### 1. 今村鞆의 글

우리네 지게에 관해서 언급한 글은 이것이 처음이다. 저자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운반 기구, 제도, 역사 따위를 설명하면서 '지게'항목을 따로 두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216~217쪽).

"지게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부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면 천년 이상의 신라 고분에서 나온 도기(陶器)에 지게 그림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매우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것은 남방(南方) 조선의 발명으로 생각된다. 오늘날에도 함경·평안 사람들은 지게를 쓰는 것이 매우 서툴러서 토목공사를 벌이는 사람이 북방에서 일을 할 때 지게가 필요한 경우 일부러 경성(京城, 오늘의 서울) 부근에서 모집해서 데려 간다.

지게의 장점은 중심(重心)이 잘 잡히고 액체처럼 흔들리는 물질을 제외하면 어떤 것이든 지를 수 있으며 또 그 무게는 그다지 몸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크고 긴 목재 따위나 키가 매우 높은 것도 지를 수 있는 점 등이지만 이 지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 아침에 익히기는 어렵다. 조선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작은 지게를 만들어 저서 지게의 능력을 배우고 또 몸이 지게에 익어 가도록 점점 진화(?) 시켜 나간다.

지게도 지방에 따라 다소 양식을 달리하고 있으나 필요한 운수기관이라고 한다면(지게가 필수적인 운반기구라고 한다면의 뜻) 각자의 것을 모아서 물리학적, 생리학적으로 연구 한다면 더 개량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한편, 자동차의 운전수를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면으로는 구식의 재래의 것에 대한 연구도 역시 필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역로(驛路) 이외의 시골의 좁은 길로 관청의 물건이나 서류(官物書面) 따위를 운송하는 방

법에 대해서는 군청에 면주인(面主人)이라 불리는. 그 지방에 고용된 사람들이 각 방면마다 서너 명씩 있어서 그들이 전달을 담당하였다. 조선의 현 행정 구역인 면 이름에 동·서·남·북·중 따위의 명칭이 많은 것은 바로 그 때문으로 리(里)가 자치 단위임에도 이러한 점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없애고 단지 배달 구역에 지나지 않던 것을 단위로 삼은 것은 옛것을 돌아보지 않는, 실정에 맞지않는 잘못된 방법이었다. 이 때문에 오늘의 자치 단위로서의 면(面)은 단결력이나 향토 관념이 털 끝만큼도 남아있지 않다.

이야기가 옆 길로 들어갔거니와 그 면주인이 몸에 지니고 나르는 외에 보발(步撥)이라고 하여 마을마다 다음 마을에 관청의 물건이나 서류를 전송할때 순차적으로 당번을 정하고 밤에 쓸 횃불을 마련해 두어서 어느 때든지 관명(官命)에 따를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그것은 마을에서 마을로 전달하는 것이므로 늦는 경우는 있어도 확실하게 도착되었다.

명치(明治) 40년의 보호정치(한일합방의 뜻) 이후에도 일본 관리들이 지계를 매우 즐겨 이용하였고 어떤 행정관은 자기의 화분을 이로써 날랐으며 어떤 헌병은 첩을 지계 위에 얹어서 천수관음(千手觀音)처럼 등을 (지계꾼에) 마주 댄채 나르게 하는 따위의 일도 벌어지고 또 관리도 아닌 일본 사람이 관리처럼 행세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던 까닭에 당시, 보발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내훈(內訓)도 나왔다……”

이 글의 “천 년 이상의 신라 고분에서 나온 도기에 지계 그림” 운운한 부분은 그림이 아니라 지계를 진 인물을 빗은 휴인형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지계 연구 I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그가 지계를 “남방 조선의 발명으로 생각 된다”고 한 대목은 매우 흥미롭다. 뒤에 설명하는 대로 저들이 쓰는 지계의 한 가지가 우리게서 건너 갔음을 인정한 글은 1958년에야 나왔으며 더구나 대부분의 일본 학자들은 아직도 지계 발명지가 한국이 아니라 “대륙”이라고 얼버무리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가 이러 저러한 단서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지계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고 글의 내용이 훨씬 이전부터 우리네 지계가 일본에 건너가서 쓰여지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한 점으로 미루어 거의 직관(?)에 따라 자기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저자가 비록 우리 지계에 대해 깊은 연구를 쌓지는 않았지만 우리 민속에 대한 여러 가지 저작을 남겼던만큼 그의 남다른 관찰력이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고 하겠다. 지계의 형태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이를 “물리적, 생리학적으로 연구하여 개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대목도 이를 뒷받쳐 주는 증거인 셈이다.

또 그가 지계의 장점을 여러 가지로 들고 나서 지계질은 하루 아침에 배울수 없으며 어릴 때부터 익혀야 한다고 설명한 대목도 눈을 끈다. 물론, 우리라고 아무나 지계를 능숙하게 질수는 없지만 일본 사람이었던 그는 지계의 기능에 감탄한 나머지 지계를 지는 일을 매우 까다롭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웃넉 사람들은 지계질이 서툴러서 큰 공사가 있을 때 서울에서 지계꾼을 모집해서 데려 갔다”는 부분도 매우 새롭다. 과연 함경도나 평안도 사람들의 지계 부리는 기술이 것처럼 뒤떨어졌었는지 궁금한 일이다.

## 2. 染木漁의 글

저자는 중국의 동북지방(옛 만주)을 여행하면서 느낀 소감을 그림을 곁들여 소개하였는데, 그 가운데 지게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히 적어 놓았다. 당시에 우리 지게가 하르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사실도 새삼스럽다.

우리 지게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뽑아 옮기면 다음과 같다.

“...(滿洲 敦化의) 조선 여관 앞을, 우리나라 산촌에서 쓰는 것과 비슷한 운반구를 지고 가는 사람이 눈에 띄기에 사진기를 가지고 되돌아 왔더니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뒤에 성내(城內)를 돌아다니던 중 같은 것이 있어 마부에게 물은 즉 만주의 것이 아니라 반도(半島)에서 들어온 것이라 한다.

중국 사람들은 본디 일본 사람처럼 짐을 등에 지지 않는다. 산동지방에서 해마다 수만명이 만주로 옮겨오지만 나는 그들이 지게나 배낭 비슷한 것에 짐을 진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 ... 그러나 조선에서는 예부터 지게의 제작이 발달되었던 모양이다. 그것이 우리 고유의 것과 다른 점은 지게 윗 부분이 날카롭고 뒤에 짐을 받치는 두 개의 긴 가지가 달린 점이다. ... 뒤에 나는 북경에서 매우 드문 지게의 하나를 보았다. 하북성의 시골에서 쓰는 빼이짜(背枷)가 그것으로 우리 것처럼 가지가 달리지 않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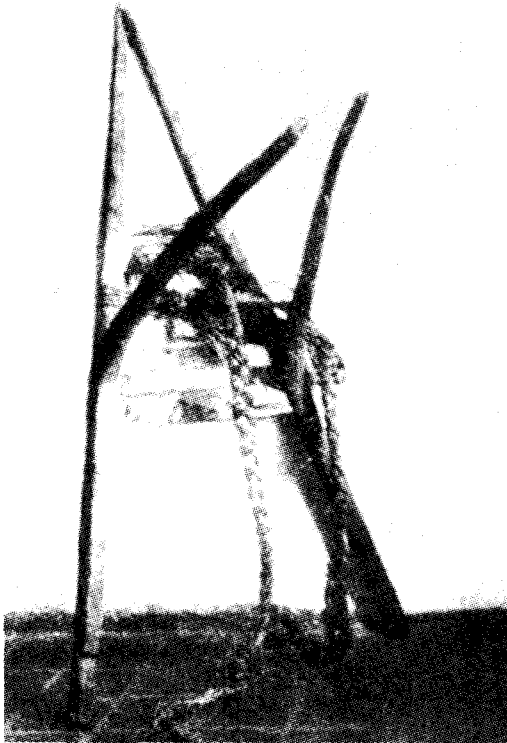


사진 1. 하르빈 박물관에 소장된 우리 지게



사진 2. 빼이짜를 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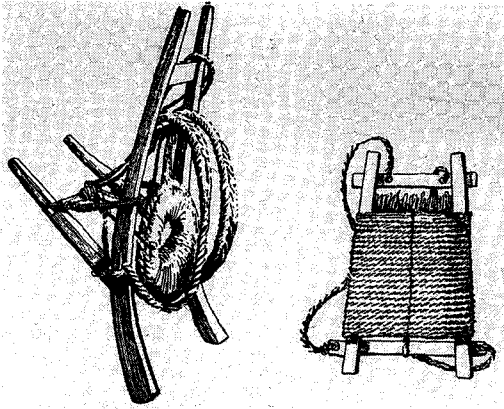


그림 1. 우리 지게(왼쪽)와 일본 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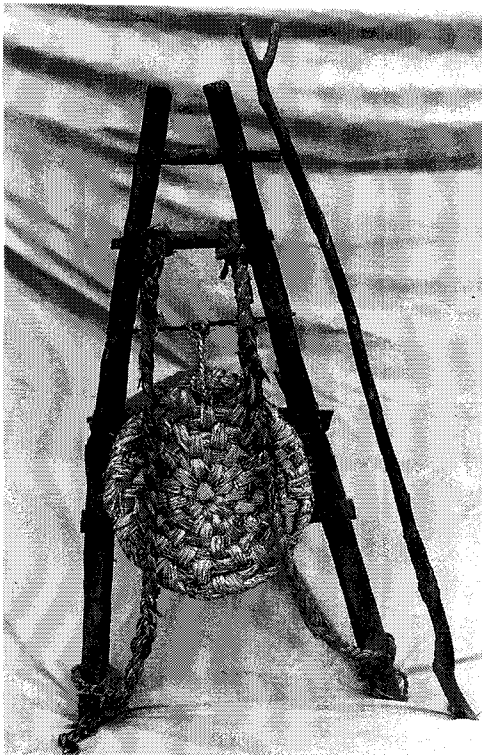


사진 3. 제주도 자연사 박물관의 따리 등태 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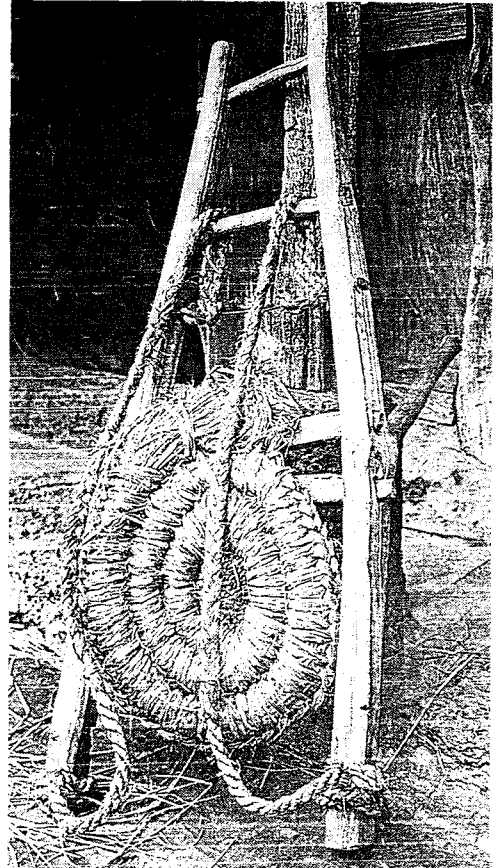


사진 4. 지역 미상의 따리 등태 지게(인병선의 풀문화<대원사>에서)

그는 하르빈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지게”와 중국 하북성사람이 빼이짜를 지고 서 있는 사진 각 한 장(사진 1, 2)과 우리 지게와 일본 지게 그림을 곁들였다(그림 1). 그림 설명 제목은 “우리나라 지게 두가지”로서 한국 지게는 “대륙에서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는 이른바 조선지게(カルい)”라 하고 다른 하나는 “고유의 지게”라 덧붙였다. “조선 지게”조차 “우리(일본)지게”에 넣은 것도 우습지만 정작 우리 지게는 “대륙에서 들어온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저들의 것은 “고유 운운”하였으니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옛 만주에서도 우리 지게가 널리 쓰였고 그것이 하르빈 박물관에까지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어 흥미롭다. “지게 윗 부분이 날카롭다”고 한 대목은 두 몸의 새고

자리가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서 우리나라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대양리의 일부 마을에서도 쓴다(사진 5). 중국 하북 지방의 빼이짜에 대해서는 지계 연구 1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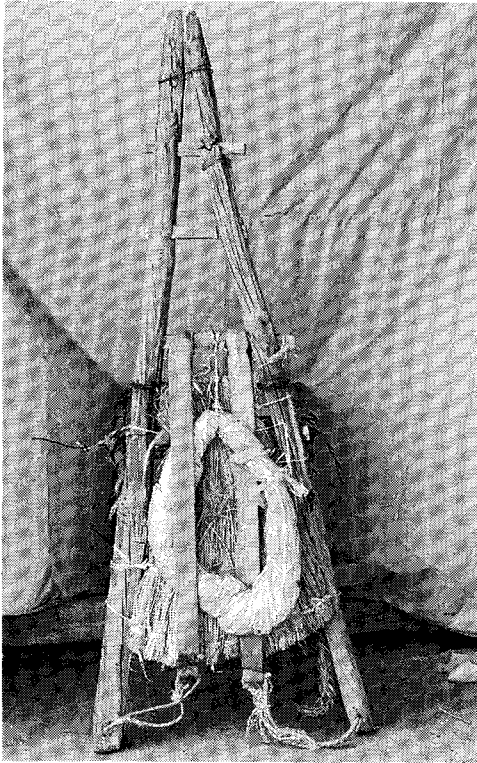


사진 5. 경기도 화성군 일대에서 쓰는 '뿔지계'

### 3. 礮貝勇의 논문

중요 부분을 몇 대목으로 나누어 뽑아 옮기고 그 도막마다 나의 견해를 덧붙인다.

“지계의 보조구로서 작대기를 쓰기도 하지 만 이를 전혀 쓰지 않는 곳도 있다. …지계 몸의 길이, 짐의 무게, 지계를 쓰는 곳의 지형에 따라 작대기의 사용은 여러가지이며 그 형태도 각각이다.

지계의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몸 가운데 또는 아래쪽에 가지가 달린 것과 달리지 않은 것이 그것이다. … 가지가 있는 것을 제가지지계(有爪型), 없는 것을 바지계(無爪型, 그림 2)라 부른다. … 지계 가지도(다른 나무를 깎아) 몸에 끼운 것(쪽지계)과 자연목의 가지를 이용한 것(제가지지계)이 있다. 제가지지계는 조선 지계의 직류(直流)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 제가지지계는 대체로 사다리꼴이지만 위 아래(너비)의 차가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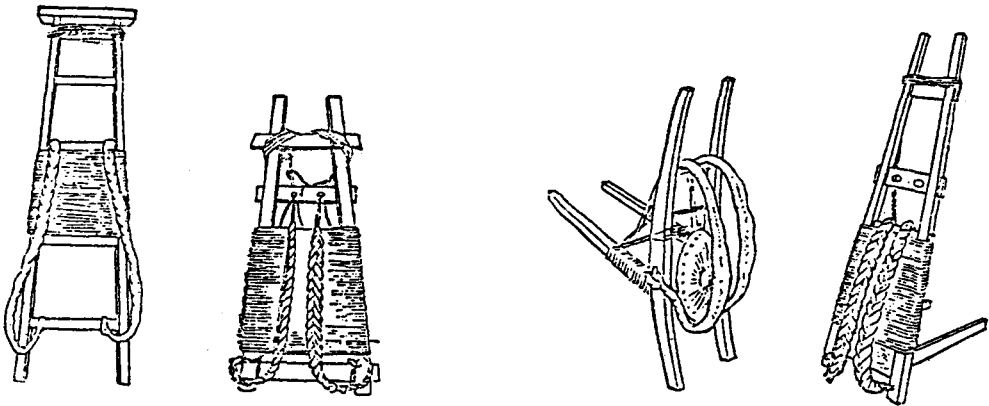


그림 2. 1, 2는 바지계이고 3, 4는 제가지지계이다.

며 가지의 각도는 60도에 가깝고 가지는 몸 가운데에 있다.

나는 이것을 “제가지지계 A형”(그림 2의 3)이라 부르고… 가지의 각도가 90도에 이르며 가지가 몸 아래쪽에 달린 것을 “제가지지계 B형”(그림 2의 4)이라 부른다. 제가지지계 A형은 “조선 지계”가 일본에 들어와 생긴 것이며 제가지지계 B는 그 아류(亞流)임에 틀림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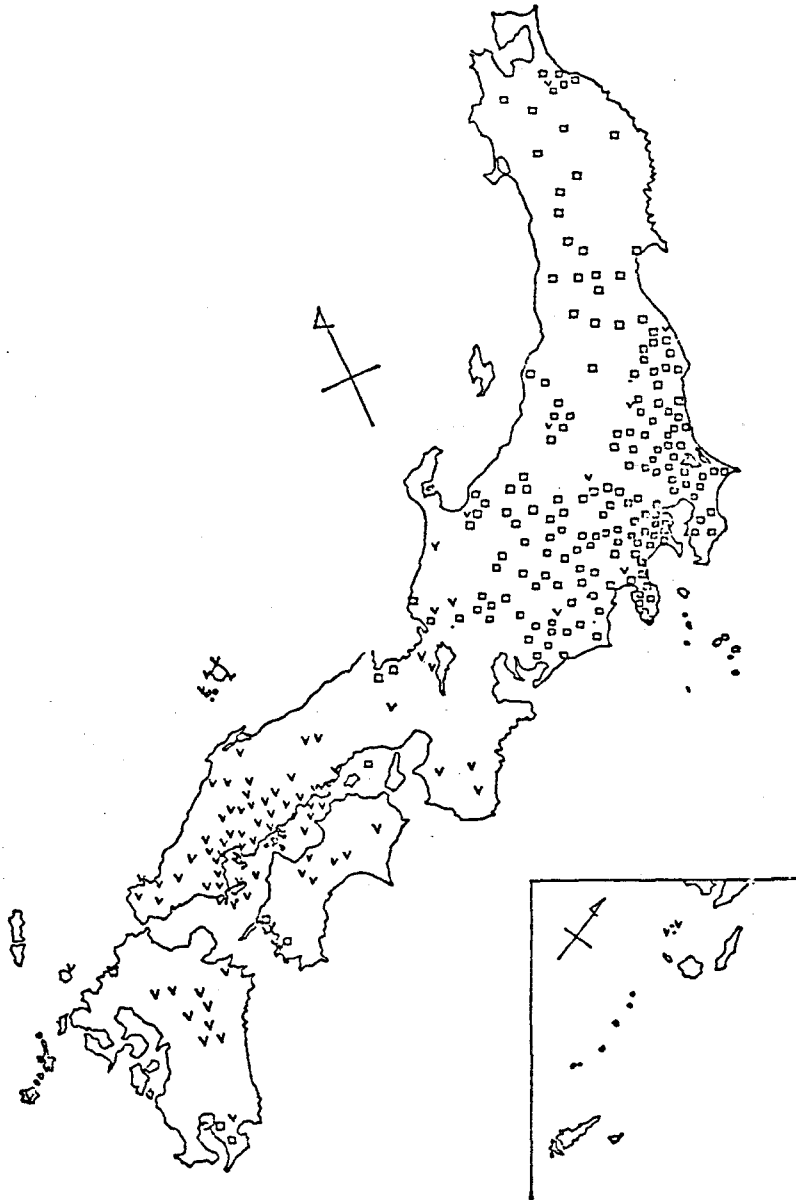


그림 3. 제가지지계(V)와 바지계(□)의 분포도



이와 같은 지계의 분포 지역은 대체로 중부와 近畿지방의 경계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곧 바지계는 이 선의 동북부인 關東, 北陸, 東北, 中部지방 일대에, 제가지지계는 서남부인 中國, 四國, 九州 지방 일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그림 3).

일본 제가지지계(A, B형 모두)의 원조가 한국 지계이며 그 분포 지역은 예부터 우리네 문화와 연관성이 깊었던 중부 이남지역이라는 점은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언급을 한 것은 그가 처음인 바, 오늘날의 일본 학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터이다. 한편, 지계 몸매 다른 나무를 깎아 끼워서 가지로 삼는 쪽지계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전라북도 중서부 평야지대에서 예부터 널리 사용 되었다. 따라서 제가지지계 뿐만 아니라 쪽지계도 한국에서 건너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계와 작대기는 언제나 붙어 다닌다. 우리는 작대기 없는 지계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를 전혀 쓰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하니 흥미롭다. 작대기의 형태가 여러 가지라고 한 대목은 아마도 우리네 쪽지계에 쓰는 축작대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쪽지계” 항목에서 설명 하겠다.

“지계가 우리 나라에서 사용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바지계에 이어 제가지지계가 나온 것은 분명하며 그다지 오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지계의 기원은 매우 오래다. 삼국시대(5~6 세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출토품에 지계를 진 흙인형(土偶)이 있었다는 사실을 淺川伯教에게 들은 적이 있다<sup>3)</sup>. 일본에서는 본디, 물건을 등에 저 옮길 때 끈을 둘러서 어깨에 메었으며 뒤에 바지계가 나왔고 다시 제가지지계가 생겨났다.

제가지지계는 바지계와 기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제가지지계는 조선지계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틀림없이 대륙에서 들어온 문화이다. 中國, 四國, 九州 지방의 일부에서 제가지지계 A형을 조선 오이꼬, 조선 가루이, 唐人 가루이라 하고 조선말 그대로 지계라 부르는 곳도 있다. 이것은 지계의 전래 방향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그는 제가지지계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가지지계는 바지계와 기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꼬리를 달아서 바지계의 일본 자생설을 은근히 내비치었다. 그러나 이것은 지계연구 I의 “바지계”에서 밝힌대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나는 해산물을 지고 태백산맥을 넘어 내륙지방으로 풀어 먹이러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써 온 것이다. 그가 이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이렇게 적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바지계” 항목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 IV. 이 름

磯貝勇은 앞 글에서 지계에 대한 일본 이름에 다음의 유형이 있음을 들었다.

3) 이것은 지계 연구 I에서 설명한대로 흙으로 빚은 지계를 진 인물상을 가리킨다.

가. “등에 지다(背負う)”형

지계를 등에 지는 동작과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서 지계 이름 가운데 주류를 이룬다. 쇼이가 따, 쇼이하시고, 세이꼬 따위가 그것이다.

나. “지다(負う)”형

지계를 지는 동작과 기타 요소가 합쳐진 것으로서 오이, 오이기, 오이꼬, 오이다이 따위이다.

다. “가루우”형

가루우는 “세오우” 곧 “등에 지다”의 사투리로서 서부 일본에 널리 분포 한다.

라. “하시고(梯子)”형

지계의 꼴이 사다리(梯子)를 닮은 데에서 온 것으로 구사카리하시고, 쇼이따하시고, 세오이 바시고 따위로서 그 형태는 우리네 바지계와 같다. 그는 이밖에 “우마”형과 “다이”형, 그리고 “쇼이따(背負う)”형이 일부 지역에 남아 있다.

앞에서 든 가에서 다까지의 이름들은 “지다” 또는 “등에 지다”라는 동작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네 “지계”와 일치를 보인다. 우리 이름 지계도 “지다”라는 동사의 어간인 “지”에 틀을 가리키는 “개”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는 본디 갈개, 쓰개, 딸이개 따위처럼 “개”였던 것이 뒤에 부르기 쉬운 “계”로 바뀌었을 것이다.

지계의 이름에 대한 이와같은 공통점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일본쪽의 이름이 우리의 영향을 입은 것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밝혀 따지기는 어렵지만 지계류의 기구가 저쪽으로 건너갔던 까닭에 한국쪽의 명명법(命名法)을 그대로 따른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와 가까운 대마도에서 지계를 “지계” 또는 “시케이”, 뒤에 설명하는 대로 岐阜県の 일부에서 지끼라 부르고 中國地方에 “조센 오이꼬”, 五島列島에 “唐人가루이”라는 이름이 남은 것으로 미루어 전과 당시에는 ‘지계’였던 것이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 이름으로 바뀌고 지명마저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경기도 서해도서 지방의 부계도 한자음인 負와 우리말 계(개)가 합쳐진 것으로서 일본 지계 이름법을 연상 시킨다.

한편, 宮本馨太郎도 13의 글에서 일본 지계 이름을 가루우系, 오우系, 세오우系, 쇼우系 등으로 나누고 가루우系는 西南日本, 특히 九州 지방 전역과 中國 및 四國의 일부에, 오우系는 近畿, 中國 및 四國의 대부분과 九州 일부에, 세오우系는 中國, 四國 및 關東의 각 일부에, 쇼우系는 關東 및 中部 지방의 대부분과 奥羽地方의 일부에 분포한다고 적었다.

## V. 제가지지계

우리네 제가지지계의 일본 전과에 대해서는 宮本馨太郎도 인정한다. 그는 13의 글에서 “요컨대 우리나라의 등 운반법은 예전에는 오직 멜끈(背負繩)만을 썼으며 뒤에 이것에 짚으로 짠 등태를 대게 되었다. 그리고 짚 등태 대신 널쪽 내지 틀을 고안하였고 결국 이것이 지계

가 되었으며 극히 근년에 이르러 발생적으로는 전혀 계통을 달리하는 제가지지계가 대륙으로부터 유입, 전파되어 현재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 것이다.

그는 앞의 磯貝勇과 달리 제가지지계가 “대륙으로부터 유입 전파 되었다”면서 “또 대만의 高山族이나 중국 대륙의 諸族에도 이와 유사한 운반구가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토를 달았다. 그가 말하는 “대륙”은 어디를 말하는지 묻고 싶거니와 대만 고산족의 운반구는 우리 지계와 거리가 먼 것이었으며(지계연구 I “외국의 지계류” 참조) 나의 현지 조사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이들의 보고서<sup>4)</sup>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또 “중국 제족”은 운남성 등지의 소수민족을 가리키는 듯 하나 이들의 것도 우리 지계와 전혀 다르다.

이밖에 그는 앞의 磯貝勇의 제가지지계와 바지계 분포 지역을 들고 다음의 견해를 밝혔다.

“이 두 지역에 두가지 지계가 각각 독립, 분산적으로 나타나는데 제가지지계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 곧 西南 日本에 바지계가 고립적으로 보이는 것은 예전 이 지역에도 바지계가 광범하게 퍼져 있었으나 제가지지계가 새롭게 들어옴에 따라 쇠퇴한 잔존 양태를 알려주는 것이다. 또 그 반대로 바지계 형식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東北 日本에 제가지지계가 분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지계가 이 지역에 새롭게 침투, 전파된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바지계가 재래의 것이고 점차 이에 대신해서 새 형식의 제가지 지계가 西南 日本으로부터 東北 지역으로 전파, 보급되어간 과정을 알려 주는 것이다.

또한 조선 지계에 더욱 가까운, 사다리꼴 틀 가운데 가지가 달린 형식의 지계는 대체로 中國 지방 西部내지 九州 지방에도 분포한다.”

이 글은 磯貝勇의 단순 분포설에 깊이를 더한 것으로서, 일본 서남부 지역에서 제가지지계가 재래의 바지계를 축출시키는 한편, 서북부에서 제가지지계가 그 권역을 점점 넓혀가는 사실을 밝혀 놓았다. 그는 제가지지계가 한국에서 들어왔음을 암시하였으나 바지계는 역시 “재래의 것”으로 다루었다.

中村たかを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발표 하였다. 다음은 5의 글 가운데 해당 부분이다.

“... 제가지지계에는 길이가 긴 A형과 짧은 B형이 있으며 A형은 ... 中國地方的 西部에서 九州 일대에 분포하고 그 형태는 뚜렷한 사다리꼴을 이룬다. 또 B형은 A형보다 동쪽지방, 中國의 東部에서 四國, 近畿에 미치며 A형의 흐름을 받아 형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바지계는 日本列島の 東半部に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일부는 西日本에서도 더러 눈에 띈지만 제가지지계는 절대적으로 西部 日本에 많고 더구나 본디 것이라고 할 제가지지계 A형은 그 근거지가 九州로 생각된다. 이러한 분포의 결과는 예전 바지계가 전국적으로 쓰인 시기가 있었으며 언제부터인가 제가지지계가 퍼져나가 바지계를 압도해서 九州方面에서부터 東으로 확산되어 갔음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지지계 A형에 가까운 꼴을 지닌 것에는 한국의 지계가 있으며 이

4) Tadao Kanno, Kokichi Segawa, 1956. An Illustrated Ethnography of Formosan Aborigines. Vol. 1. The Yami. Maruzen Company LTD.  
Chen Chi-lu, 1968. Material Culture of The Formosan Aborigines. The Taiwan Museum.

지계의 동아리가 바다를 건너온 것이 아닌가 하는 설도 있다. 그러나 어쩌서 제가지지계가 九州에만 널리 퍼졌으며 그것을 가능케한 것은 어떤 문화였는지 아직 분명치 않다.”

그는 “이 지계의 동아리가 바다를 건너온 것이 아닌가 하는 설도 있다”며 지계가 한국에서 건너간 사실을 얼버무리려 한다.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제가지지계가 구주에만 퍼진 이 유나 그것을 가능케한 문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치 않다고 잡아 댄다. 그러나 지계 뿐 아니라 따비, 쟁기, 방아 따위의 여러가지 농기구를 비롯하여 각종 선진문화가 한반도에서 일본의 구주 지방으로 건너간 사실을 이제는 일본 학자들도 모두 인정하는 터이므로 다시 말할 것이 못된다.

앞에서 든 글에서처럼 바지계가 일본 고유의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바지계 항목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우리 지계의 일본 유입 사실에 대해 분명한 증언을 한 사람은 織野英史이다. 그는 “한국 서남부 7郡 10개 지점의 현지 조사를 통해 모두 509점의 지계를 실측하였고 국립민속박물관등을 비롯한 58개 공공시설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삼아” 이 사실을 밝힌 것이다. 그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러면 九州型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九州型이 조선반도의 지계(チゲ)의 移人인 점은 一目瞭然하다. 목발 부분이 너른 점, 가지의 위치, 지계 꼬리를 세장의 뒤로 돌려서 잡아매는 방법 등 바로 지계 그대로인 것이다...”<sup>5)</sup>

그는 일본의 전문가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지계를 찾아 다닌 결과,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으며 일본에서 쓰이는 한국형 제가지지계를 “지계형”이라 이름 지었다<sup>6)</sup>. 일본인들에 의해 우리 지계의 일본 유입설이 나온 이래(1936년) 실로 반세기가 지나서 이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이를 일본 학자들이 모두가 공인하는 것은 아니며 아직도 일본 자생설에 미련을 가진 이가 남아있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下野敏見이 그 사람으로 그는 15의 글에서 한국과 일본의 바지계 사이에 親緣 관계가 있다면서 “오늘날 한국의 제가지지계는 … 大小名種の 변화가 보인다. 고대에 있어 先進地였던 한국이나 그 배경의 대륙에서는 예전, 바소거리 같은 것이 쓰이고… 곧 제가지지계는 조선의 지계와도 연결되는 것으로서 분명히 대륙 운반문화의 移入이라고 하지만 그 가설을 보강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서 지계가 바소거리(일본의 다가라)에 끈을 매고 등에 저 나른 데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을 지계에 얹어 쓰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한국에서 제가지지계가 들어왔다면 서도 바지계는 일본에서 자생한 것으로 여겨지나 제가지지계는 그의 말처럼 조선 내지 대륙에서 생겨나 일본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앞 대목에서는 磯貝勇의 “가설을 보강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더니 뒤에서 다시 이를 뒤집고 “조선 내지 대륙…” 운운 한 것이다.

5) 10의 글, 110쪽.

6) 10의 글, 9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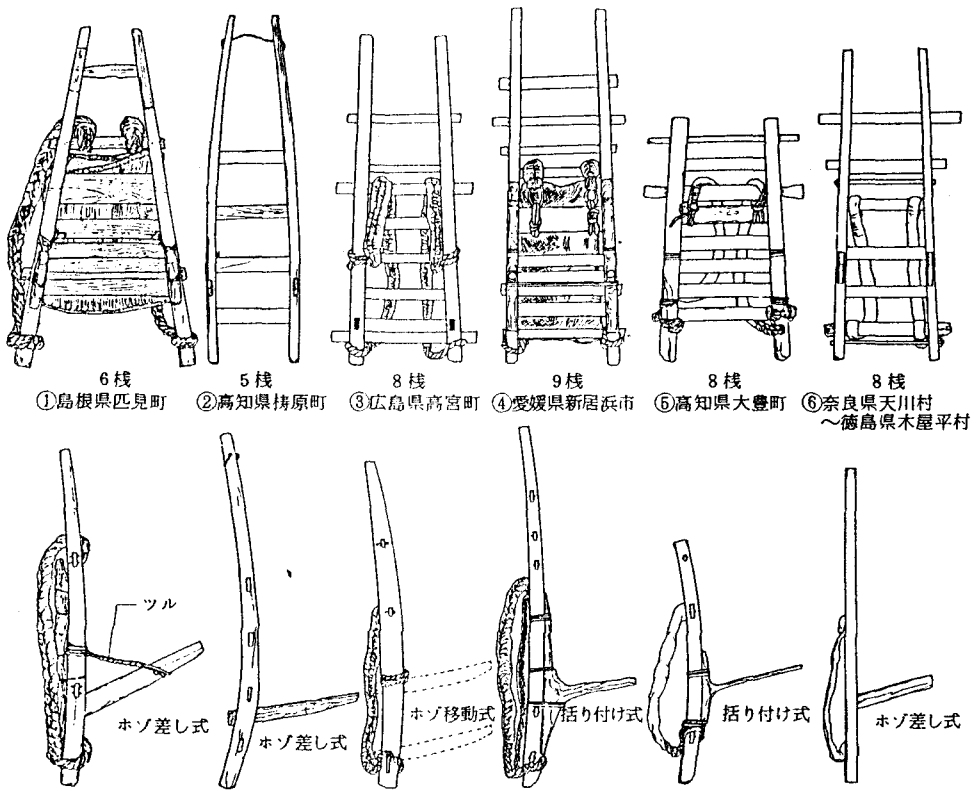


그림 4. 織野英史가 말하는 구주형지계

그는 앞에서 든 10과 11의 글을 분명히 읽었을 터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므로써 織野英史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부인할 속셈을 가진듯 하다. 일본 학자들의 이같은 “대륙 명령”이 언제 쯤 사라질 것인지 답답한 일이다.

다만 한가지, 그의 글을 통해서 바소거리마저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을 확인케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제는 제가지지계가 들어온 시기를 일본쪽에서는 언제 쯤으로 보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차례이다. 이에 대해 처음 언급한 이도 磯貝勇이다. 그는 3의 글에서 “愛知県北設樂郡 富山谷村의 길 가에 버려진 제가지지계 A형을 보고 일시적으로 만든 데다가 새로운 것이어서 조선사람의 것이라 상상하였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그것은 철도 공사때 옮겨온 조선 사람이 쓴 것으로 이곳 재래 바지계에 비해 대단히 뛰어난 기능을 보였다고 한다. 돌덩이처럼, 무게에 비해 덩지가 작은 것을 나르는 데에 제가지지계가 더욱 쓸모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新潟県 南魚沼郡 湯澤村에서 돌을 나를 때 쓴 제가지지계 A형도 조선지계를 본 떠 만든 것으로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

그는 이어서 앞에서 든 것처럼 “바지계 뒤에 제가지지계가 나온 것은 분명하며 그다지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함으로써 은연중 제가지지계의 일본 유입이 20세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던져 준다. 더구나 그 이후의 많은 이들도 비슷한 주장을 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지지계의 전파 시기를 20세기 초라고 못박아 말한 첫 사람은 脇田雅彦이다. 그가 발표한 14의 글은 일부 한정된 지역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기는 하나 제가지지계의 이입, 정착 과정을 확실하게 밝힌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한국 지계가) 이처럼 쓰기 편하고 활용 범위도 넓어서 종래의 모꼬(モッコ)나 후찌모꼬(フヂモッコ)에 의존해온 土木關連 일터에서 등으로 나르는 것을 가능케 만든 점 등 혁명적인 기능을 이룩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大正(1912~1926) 초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村人 사이에 재빨리 침투 정착 되었다. 그 유래는 칠도나 발전소 건설에 따라 조선인들이 가져온 데에 있다. 도입연대가 확실한 만큼 지방으로의 수용형식과 전파 속도 등의 과정을 밝힐 수 있어 흥미로운 연구 재료를 제공해 준다...”

한국 지계에 대한(岐阜) 県内の 명칭 분포도...를 보면 거의 全県에서 “세오이이따(セオイト)라 부른다... 한정된 지역이기는 하나 외래어 그대로 지끼(チッキ)라는 이름이 ...에 남아 있다.”

앞 글에서처럼 이 글에서도 한국의 지계가 저들의 것보다 우수한 점을 인정 하였다. 그리고 곳에 따라 지계를 우리 이름 그대로 부른다는 부분도 주목 된다. 岐阜県은 일본 중부에 위치한다.

神野善治도 5의 글에서 비슷한 견해를 늘어 놓았다. 그는 제가지지계가 숲을 끊거나 송이 재배를 위한 원목이나 우유통을 나르는 일에 쓰였음을 들고 “이러한 형의 지계를 조선인 죠이꼬(チョウセンゾイコ)라 부르는 데가 伊豆에도 있다”면서 “南伊豆町 毛食野나 一条 등지에서는 이것이 조선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제2차대전 전부터 중반에 걸쳐서 조선인 노동자가 伊豆에도 많이 와 있었던 모양이다. 이들이 토목공사용 모래를 나르는 데에 쓴 지계도 바로 같은 모양의 것이었다고 한다. 沼津市 西浦에서도 감귤 밭을 일굴 때 일했던 조선 사람들이 이 지계에 50~60kg의 돌을, 때로는 100kg이 넘는 돌을 날랐다 하며... 이들의 지계는 다리가 길고 가지가 달린 대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제가지지계의 전파 시기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의견을 내었다.

“지계는 고대나 중세 풍속화류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근세 이후에 보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浜松의 伊場遺跡 출토 유물 가운데 6세기 말에서 9세기 초의 지계로 보이는 것이 20여 점 있다. 이것이 지계로 쓰였다면 대단히 중요하지만 나오서는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아쉽게도 그는 앞의 출토 유물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을 곁들이지 않았다. 실물을 보지 못한 나로서 무엇이래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지만 이같은 내용은 제가지지계의 전파 시기를 가리는 데에 중요한 열쇠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학자들은 어째서 이 유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제가지지계의 전파 시기를 20세기 초엽으로 본 사람을 小野重明이다. 그는 6의 글에서 “제

가지지계는 조선에서 北九州로 들어와 豊後 등지의 산간에서 산(山)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함에 따라 동으로 남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그 시기를 明治 말기에서 昭和 초기(明治末年은 1912년이고 昭和 원년은 1926년이다)로 잡았다.

木下忠도 7의 글에서 “近畿 以西에서는 …등으로 불리는 제가지지계를 쓴다. 이 지계의 전과 시기는 明治·大正(1868~1926) 무렵으로 생각되는 곳이 많다. 특히 가지가 길고 아래가 벌어진, 조선반도에서 들어온 것을 지계라 부르는 곳도 있다”고 하였다.

앞 사람들이 전과시기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으로 본 것과 대조적으로 이를 중세에까지 끌어올린 사람은 제가지지계의 일본 유입을 분명히 밝힌 織野英史이다. 다음은 그의 10의 글 내용이다.

“對馬島에서는 지계를 시계에 또는 오이꼬라고 한다. 시계에는 지계의 訛傳이다. 이곳 지계는 九州型 제가지지계, 지계型, V字型 제가지지계의 세가지가 있다. … 지계型은 3백명에 이르는 많은 조선 노동자가 大正 때(1912~1926)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쓴 것으로 생각되나 淺茅灣을 근거지로 삼은 왜구들은 조선 반도 연안부에서 약탈을 일삼았으므로 … 中世에 지계가 들어왔을 기회는 충분 하였음에 틀림없다. 또 對馬島가 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에 길라잡이 구실을 하였고 江戸期(1600~1867)에 부산과의 무역이 … 활발 하였으며 … 그 移入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는 이밖에 大分地方의 어민들이 1878년부터 대규모로 우리나라 남부 근해로 出漁하였고 이들이 경남의 통영, 사천, 영일 전남의 여수, 전북의 군산, 황해도의 장연 등지에 이주한 사실을 들고 비록 그 시기가 19세기 말 경이기는 하나 그 이전부터의 긴 어업 시기를 생각하면 충분히 지계와 접할 기회가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앞 사람들이 제가지지계의 전과 시기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으로 보았음에도 織野가 이를 중세로 잡은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 하겠다. 우리 지계가 이차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으로 끌려간 노무자들에 의해서 유입, 전파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제가지지계가 이처럼 짧은 기간에 서부 일본의 거의 전역은 물론이고 일부 동부에까지 퍼져 나가는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일본 각지의 주민들이 제가지지계가 20세기 중반에 들어왔다고 말한 것은 강제로 끌려간 노무자들이 쓰는 것을 보고 한국 지계에 대한 유용성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어 앞다투어 이를 본떠서 쓰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적어도 4세기 이전부터 지계를 써 왔음이 확실하고 맷돌, 따비, 쟁기 따위의 농기구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5~7세기이므로 이 무렵 지계도 함께 건너갔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다.

## VI. 쪽 지 계

나는 지계연구 I 쪽지계 항목에서 쪽지계에는 쪽나무를 엮어서 간단히 만든 것과 지계 몸

과 가지가 따로 이루어진 것의 두 종류가 있음을 들고 뒤의 지계가 주로 전라북도 중서부지역에 분포하는 사실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붙였다. 이 글에서는 전북의 쪽지계와 일본의 그것을 견주어 나가겠다.

먼저 우리는 일본에서도 쪽지계를 쓴 사실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첫 언급은 礪貝가 쓴 3 글에 들어 있다.

“... 몸과 가지가 다른 지계의 경우, 가지는 구멍을 뚫고 끼우며 무거운 짐을 실을 때 가지가 힘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보강 조치를 한다. 즉 가지 옆으로 끼우거나 뺄 수 있는 작대기를 마련한 것이다.

특수한 구조를 이룬 것 중에는 짐의 크기에 따라 가지의 위치를 바꿀 수 있도록 구멍을 위아래 두 곳에 뚫은 것도 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礪貝가 제가지지계는 조선 지계의 直流라 하면서 쪽지계에 대해 아무 설명을 붙이지 않은 것은 이 지계가 한국에 있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쪽지계도 한국에서 건너간 것임에 틀림 없다. 그리고 짐의 크기에 따라 가지를 위아래로 바꾸어 끼울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도 썼다.

앞에서 밝힌대로 神野善治도 4의 글에서 쪽지계에 대해 보고 하였다.

“가지 달린 지계의 가지 형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자연목을 이용한 것, 둘째 다른 나무를 깎아 끼운 것, 셋째 가지를 접어 붙이는 것 들이다. ... 다른 나무를 쓰는 경우 몽둥이 모양의 가지를 못을 박아 고정시키지만 이것만으로는 짐을 실었을 때 가지가 아래로 내려앉을 위험이 있으므로 철사를 쓰거나 비스듬히 깎은 나무를 대어 고정 시킨다. ... 가지를 접어 붙이는 식은 戶田村, 西伊豆町, 松崎町에서 쓰며 西伊豆町의 田子에서 만든 형적이 있다. 몸에 구멍을 뚫고 가지 끝이 꼭 들어가 맞도록 하며 비스듬히 잡아맨 철사가 힘을 받친다. 쓰지 않을 때에는 접어 붙일 수 있어서 장소를 차지하지 않아 편리하다.”

가지를 접어 붙이는 지계는 오늘날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짐 나르는 일에 종사하는 이른바 지계꾼들도 쓰고 있다. 보고자의 말대로 “접는 지계”는 일본에서도 극히 한정된 지역에 분포한다고 하므로 상호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개량”된 결과일 것이다. 동대문 시장의 정순식(56살)님은 “좁은 공간에도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지계가지를 조립식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한 틀 밖에 둘 수 없었던 자리에 열 틀까지도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쪽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사람은 織野英史이다. 다음은 10의 글 일부이다.

‘그러면 九州型<sup>7)</sup>은 어떻게 해서 성립된 것일까. 구주형이 조선반도 지계의 移入인 점은 一目瞭然하다. 목발아래가 벌어진점, 가지의 위치, 지계 꼬리를 세장 뒤로 돌려서 잡아매는 방법

7) 그는 구주형을 한국지계를 지는 사람쪽으로 구부리고 가지를 따로 끼우도록 개량한 것이라 정의하고 大分 및 熊本 이남의 九州에 압도적으로 퍼져 있는 외에 福岡県, 山口県, 島根県 서부 및 隱岐島, 愛媛県 城川町, 高知県 麟原町, 徳島県 一守村과 木屋平村 등지에 드문드문 나타난다고 하였다.



등 바로 지게 그대로이다. 틀린점이라고 하면 가지를 다른 나무로 끼우는 점, 등태의 모양, 지게를 구부린 것 정도이다. 지게감(植生)으로 보면 ... 조선반도에서는 자연목(소나무)으로 지게를 만들었지만 소나무가 적은 九州에서는 가지끼우기 식으로 改變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九州型 지게가 한국에서 건너갔다는 내용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므로 다시 말할 여지가 없거니와 한국식과 다르다고 한 부분도 모두 한국식 그대로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게연구 1, 쪽지게 항목에서 상세히 보고한대로 구주형지게는 바로 전북 쪽지게의 재판인 것이다. 짐을 지기 편하도록 지게 몸을 불에 구워서 구부리는 점, 등태를 또아리처럼 둥글게 트는 점(이것도 九州와 가까운 전라도 지방에 많다) 등 다르다고 말한 어느 것도 다르지 않은 점을 강조해 둔다.(그림 1, 사진 3, 4 참조) 따라서 구주형지게는 한국 지게의 변개형이 아니라 전북지방의 쪽지게가 그 모양 그대로 건너 간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도 제가지지게와 함께 전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織野는 오히려 이 점에 대해 “... 전라북도의 연안부에는 九州型과 같이 끼운 가지를 위에서 끈으로 잡아맨 형식의 지게가 분포한다. 한국에서도 특이한 이 형태의 성립에 대해서는 九州型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아직 不明한 점이 많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역수입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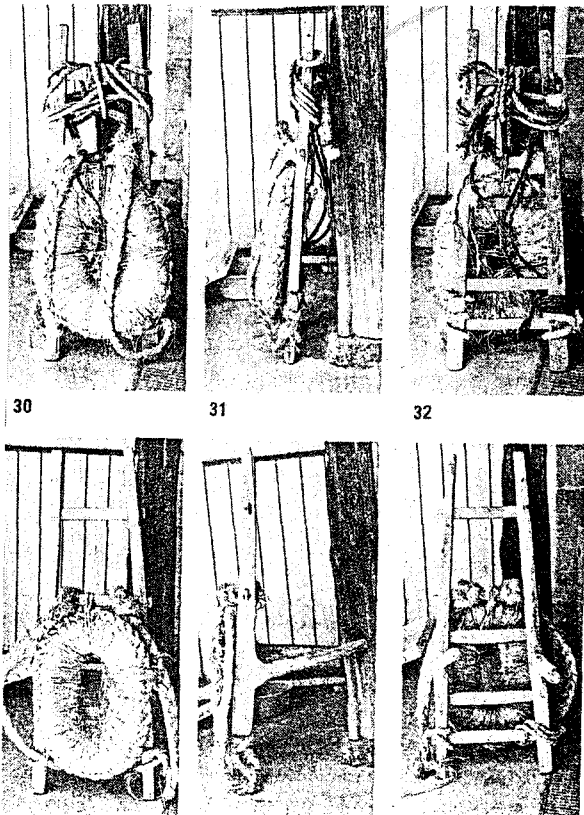


사진 6. 일본 구주지방의 짚리 등태 지게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쪽지계가 어찌하여 전북의 서부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 하는가. 나는 이미 전북 서부는 한국의 대표적 평야지대로서 산이 적은 까닭에 소나무를 구하기 어려워 마을 주변은 물론이고 집안에서도 잘 자라는 참죽나무를 이용, 쪽지계를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으며 이 지계의 전파 지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사실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九州에 쪽지계가 널리 퍼진 것도 그의 말대로 “소나무가 적은 것”이 큰 원인인 것이다.

가지지계는 물론이고 거지계조차도 한국에서 오래 전에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주장을 그 자신이 퍼 온만큼 이에 대한 설명을 더 이상 늘어놓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뒤에 설명하는대로 바지계도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을 그가 안다면 앞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그는 “(구주형과 같은) 전라북도 서부의 지계가 주로 소나무로 짜는 데에도 일부러 가지를 따로 끼우는 까닭을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 지역 쪽지계의 대부분은 소나무가 아니라 참죽나무로 짠다는 사실도 앞에서 밝혔다.

織野는 11의 글에서도 이같이 말한다.

“(전북 쪽지계의) 다음 특징으로는 몸이 지계를 지는 사람쪽으로 흰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大分가 발생지로 생각되는 九州型과 일치한다. 또 밀베를 잡아매는 방법이나 위치도 같다. 豊後の 송이재배꾼들이 서부 일본 각지에 퍼뜨린 九州型과 어째서 공통되는지 알수 없으나 전북형의 분포는 인천 인하대학교의 金光彦에 따르면...”

그는 이 글 곳곳에서 이른바 九州型을 송이재배꾼들이 퍼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더구나 그의 말대로 두 지역의 지계가 똑같은 정도의 유사성을 보인다면 전북형의 일본전파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미 설명한대로 대마도에서 지계를 지게 또는 시계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지계 자체도 쪽지계인 점도 그 증거의 하나이다. 만약 그의 가정이 옳다면 대마도의 지계 이름은 한국식의 지계, 시계이가 아니라 일본이름으로 불렸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이 글의 注에서 “전북형이 일본으로부터 역수입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에 金光彦이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덧붙였는데 이를 부인하고자 한다. 당시 나는 일본 지계의 실상을 모르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 대답은 잘못된 것이다. 이같은 견해가 그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면 이는 모두 나의 책임을 밝혀둔다.

織野가 선배 학자들이 대륙 운운 한것과 달리 제가지지계의 일본 전파 사실을 분명히 밝혔고 그 자신 우리나라에 와서 현지 조사까지 하였음에도 그 같은 견해를 밝힌 것을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앞으로 그가 한국 지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린다면 그의 주장을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는 우리네 바소거리가 일본에 건너간 사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거름을 등에 젖 나르는 기구 가운데에 대바구니(籠)가 있다. 그런데 中國山地 西部에는 九州의 버섯재배꾼이나 조선 노동자가 많이 들어왔으며 지계에도 그 영향이 나타났지만 지계에 바

구니를 쓰는 것은 關東보다도 조선반도의 영향일지도 모른다. 조선반도에서 지계에 짜리로 엮은 바소거리를 엮어 쓰는 점에 대해 이미 설명하였지만 조선 노동자가 그 형식을 그대로 전파시킨 예가 岐阜縣…에도 있다. … 지계가 토목 공사 때 조선인 노동자들에 의해 퍼지고 그것이 그 뒤에도 전파된 예는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으나 바소거리까지 전파된 것은 드문 일이다”.

## VII. 바 지 계

나는 지계 연구 I에서 동해안의 수산물을 내륙 산간 지대로 풀어먹이러 다니던 선길꾼들이 가지가 달리지 않은 바지계를 썼으며 이들이 작대기 끝에 보부상들의 그것처럼 쇠꼬챙이를 박아놓았던 사실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계와 작대기가 우리네 동해에 면한 일본 서북부지역에서 역시 장사꾼들이 쓴 사실을 알게 되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우리가 바지계를 쓴 사실을 모르는 일본 학자들은 이미 든대로 제가지지계와 달리 바지계만은 일본에서 자생하였다고 굳게(?) 믿고 있는 형편이어서 나의 놀라움은 그만큼 더 클 수 밖에 없었다.

먼저, 大久根茂의 설명(9의 글)을 들기로 한다.

“長野縣 松本平 일대에는 설달 그믐날에서 정월달에 걸쳐서 방어를 막는 습관이 있다. 이 관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교통기관이 미발달한 시대에 갓 잡아올린 日本海의 방어를 나르는 데에 사람의 등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新潟縣 糸魚川에서 … 松本까지의 보기드문 폭설 지대를 깨어 뚫는 길을 이용해서 눈 속으로 방어를 나른 것은 ‘보까’들이었다(그림 5). 주로 信越國境 부근 마을의 남자들로서 … 지계와 작대기(荷杖)는 그들에게 필수적 기구였다…

지계는 매우 작아서 길이 70cm이고, 너비는 위가 30cm, 아래는 35~38cm였으며 다리가 유난히 짧은 것이 큰 특징이다. … 이러한 형태상, 재질상의 특징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거리의 산길과 눈길을 걸어야 하는 보까들의 형편에 따른 것이다(사진 7).

… 재료로는 떡갈나무나 졸참나무 등 단단한 나무를 쓰고 세장 따위의 부속목재는 가벼운 것을 쓴다. … 길이 90cm의 방어 5~6 마리를 담은 소쿠리를 실어나르며 힘이 센 사람은 두 개를 겹쳐 싣기도 한다…”.

다음은 이들의 작대기에 대한 설명이다.

“작대기는 운반 도중 잠시 쉴 때 지계를 받치는 데에 쓰며… 사람의 키에 따라 길이가 다르나 보통 80cm쯤 된다. 떡갈나무나 참피나무처럼 단단한 나무를 둥글게 깎아 만들고 굵기는 3cm이며 윗 부분에 지계를 받치는 가로목을, 다른 끝에는 작은 쇠꼬챙이(鐵斧)를 붙였다. … 쇠꼬챙이는 얼어붙은 눈길에 발판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며 작대기가 눈 속에 빠지는 것을 막는 구실도 한다. 무거운 짐을 진 보까는 조금 걷고 나서 선채로 숨을 돌렸다가 다시 걷고는

하였다. 이 경우 작대기 위의 가로목에 얹은 흙을 파고 지게의 세장을 걸쳐놓고 한 손을 뒤로 돌려서 작대기 위에 잡아맨 끈을 킌다…”(그림 6).

우리네 선길꾼과 일본의 보까는 그 실상이 너무나 흡사하며 이들이 쓴 바지게 또한 이와 같다. 다른 점을 들추자면 우리는 작대기 윗쪽에 V자꼴 노치를 지으나 저쪽에서는 흙을 판 다른 나무를 따로 붙이고 우리는 작대기 끝에 끈은 쇠축을 박으나 저쪽에서는 쇠끝이 작대기와 직각을 이루는 점 뿐이다. 더구나 뒤에 설명하는대로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지게를 질 때 작대기를 쓰지 않는 것이 관행임에도 보까들이 반드시 작대기를 짚고 다닌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단순히 눈길을 넘나들어야 하는 자연환경의 탓만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로서는 우리 동해안 선길꾼의 바지게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대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보까들이 활동한 新潟縣은 우리네 동해에 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륙의 長野縣 松本 사이에는 높이 2000m가 넘는 고봉들로 이루어진 북알프스 산맥이 뻗어내려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도 북에서 남으로 내려지른 태백산맥을 넘어 다녀야 했던 선길꾼들의 행보와 거의 같아서 흥미롭다.

바지게의 일본 자생설을 처음 내 비친 사람은 磯貝勇이다. 그는 3의 글에서 제가지지게가 “조선 지게의 直流”라 하면서도 바지게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본디 물건을 등에 져 옮길 때 끈을 돌려서 어깨에 메었으며 뒤에 쪽지게가 나왔고 다시 제가지지게가 생겨났다. 제가지지게는 바지게와 기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거의 모든 학자들은 본디 전국에서 바지게를 썼으나 제가지지게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서부 일본에 자리잡게 되고 동부 일본에서는 옛 그대로 바지게를 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림 5. 보까들이 바지게로 짐을 나르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

이러한 주장은 너무나 확고한 것이어서 새삼 설명을 덧붙일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일본 학자 가운데 小野重明은 6의 글에서 “제가지지게가 조선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처럼 바지게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도 좋은 것일까” 다소 의문을 표시 하면서도 이어 “앞에서 나는 大隅半島의 山中에서 확실히 훌륭한 지게가 창안된 것을 보아 왔다. 바지게는 동아시아의 대륙이나 주변의 섬들로부터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이 섬 나라 안에서 상당히 오랜 세월 속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木下忠은 7의 글에서 日本에서도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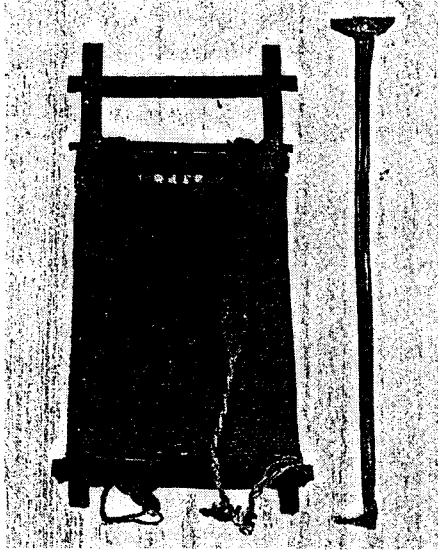


사진 7. 뽕까들이 쓴 바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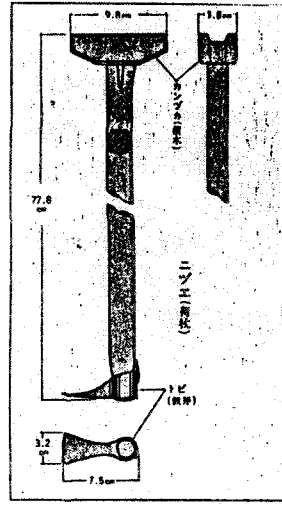


그림 6. 지계 작대기 모습

히 江戸 중심의 關東地方이 바지계의 기원지로 생각되며 江戸(1600~1867) 후기 문헌의 삽도에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바지계를 극히 제한된 지역의 일부 장사꾼(선길꾼)들이 써 오기는 하였으나 이들의 바지계가 바다를 끼고 마주보는 일본 新潟縣 보카들의 지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 VIII. 권 지 계

권지계는 지계감을 톱을 써서 길이로 쪼개서 둘로 나누어 권 지계이다. 지계감 자체가 귀하거나 비슷하게 벌어진 나무를 찾기 어려운 곳에서 흔히 이렇게 만들어 쓴다. 나무를 반으로 쪼개기 때문에 가지의 길이나 벌어진 각도가 똑 같아서 쉽게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이 방법을 이용하는데 이에 관한 첫 보고를 한 사람은 山口賢俊(12의 글)이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또 매우 굵은, 가지 돋힌 나무... 한 개를 길이로 쪼개서 둘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 가지 돋힌 나무를 길이로 쪼개 다음 지계처럼 위 아래 두 곳에 세장을 꿰어... 제가지지계처럼 만든 것이 있으며 이에 쉰나무를 실어 나른다. ... 이것을 본떠 만들되 가지를 따로 끼우기도 한다...”

그가 제시한 사진 8을 보면 지계의 길이가 짧아서 목발부분이 거의 없고 가지와 몸 사이의 각도가 좁은 점 등 지계라기보다 거지계를 연상시킨다. 우리네 동해에 면한 新潟縣에서 이 지계를 쓰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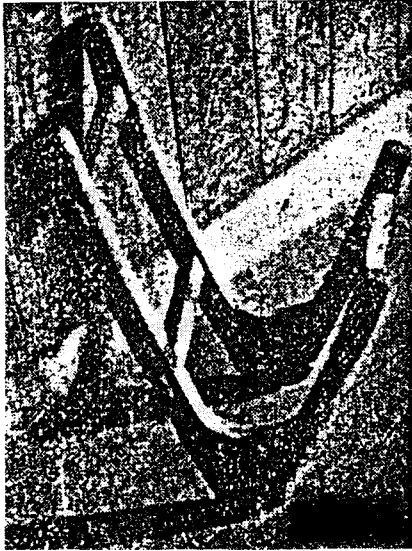


사진 8. 일본의 켄지게

이와같은 켄지게는 東京에서 멀지않은 伊豆地方에도 있었다. 다음은 神野善治의 보고(4의 글) 내용이다.

“... 또 가지가 돌힌 나무의 경우 한 그루를 길이로 쪼개서 좌우의 몸으로 삼지 않으면 쓰기 불편하여 좌우의 틀을 한 나무를 쪼개서 만든 예가 더러 있다”. 이렇게 하면 균형을 잡기가 쉽다는 것이다’

佐藤廣의 글(8)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

“지게는 스스로 걸어 쓰는 예가 많으나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도 있었다. 몸(柱)은 한 나무를 둘로 쪼개 쓰며 삼나무나 회나무가 적당하다. 지게 꼬리가 통하는 윗세장

으로는 단단한 재질의 밤나무 또는 떡갈나무를 쓴다”

켄지게를 新潟와 伊豆에 이어 東京에서 가까운 武藏野 台地에서도 걸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 IX. 거 지 계

거지계는 2~3개의 세장을 꿰어 맞춘 매우 짧은 지계로서 길이는 60cm내외이다. 이것은 반드시 마소의 길마 좌우 양쪽에 걸어서 사람이 나르기 어려운 무거운 돌이나 재목 따위를 운반하는 데에 쓴다.

이와 비슷한 지계는 일본의 대마도와 新潟県(山口賢俊의 12의 글, 織野英史의 10의 글), 등지에도 있다. 우리 것은 가지와 몸의 각도가 80~90도에 가깝지만 저쪽의 것은 이보다 훨씬 좁아서 짐은 지계 몸과 가지 사이에 끼워지는 꼴을 이루며 몸과 가지가 만나는 부분에 붙여진 턱은 좁은 틈에 여유를 더해 주는 구실을 한다.(사진 8 참조)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것을 사람이 등에 지는 점에서 우리와 대조를 보인다.

織野는 이 지계에 대해 “이 V字型은 해조류 운반을 위한 특이한 형태의 가지지계이다... V字型의 틀과 가지가 달린 부분에 2개의 세장을 걸어 연결시킨 것으로 위, 아래의 너비가 같다. 新潟県 岩船郡 山北町에서 재목을 나르는 데에 쓴 ‘마따’라고하는 지계가 이를 닮았으며 짐을 엮는 방식은 본디 가지달린 나무에서 비롯된 有瓜型이라 할것이다...”라는 설명을 붙였다.

## X. 맺음 말

우리는 이제까지 1928년부터 1992년 사이에 일본 학자들이 발표한 15가지의 글, 논문, 단행본 들을 통해서 우리 지계가 일본으로 건너간 사실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일본 학자들은 지계가 우리 나라에서 발명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대륙” 운운 하면서 우리 지계가 대륙(아마도 중국을 가리키는 듯)의 영향을 받아 생겨났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북지 지역의 운반구와 우리네 지계를 비교, 검토 이들 사이에 유사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또 많은 일본 학자들은 우리네 제가지지계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에 대해서는 수궁을 하면서도 기타 여러 유형의 지계들은 일본에서 자생하였다는 주장을 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뚜렷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지계들을(제가지지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부터 써 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데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잘못된 견해가 나온 데에는 우리 자신의 우리 지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탓도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네 농촌마을 가운데 이제 지계를 쓰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마을마다 이른바 농로(農路)가 뚫리고 경운기 따위의 보급률이 높아지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지계질을 할만한 젊은 사람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천년 동안 민족의 대표적 운반구 구실을 해 온 지계가 우리 세대에 이르러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지계는 머지않아 박물관의 유물로나 남게 될 것이다.